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참 고 자 료**	외교부 http://www.mofa.go.kr

2018년 10월 31일(수) 23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8. 10. 31(수)	담당부서	산업부 통상법무기획과 외교부 북미유럽경제외교과
담당과장	조수정 과장(044-203-4870) 김영재 심의관(02-2100-7663)	담 당 자	천서현 사무관(044-203-4874) 조무경 사무관(044-203-4872) 김미리나 사무관(02-2100-7697)

터키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 참석

- 세이프가드 조치 중단, 주요 수출품목 제외 등 우리측 입장 전달 -

□ **정부**는 **업계**와 함께 **민관합동대표단***을 구성해, **10.31.(수) 터키 앙카라**에서 열린 철강 **긴급수입제한조치(세이프가드) 공청회에 참석했다.**

* 참석자 : (정부) 산업부 이용환 신통상질서협력관, 외교부 북미유럽경제외교과 등
(업계) 철강社(포스코, 현대제철, 현대BNG스틸) 및 철강수요社(현대자동차)

○ **공청회**에서 **긴급수입제한조치(세이프가드) 조치**의 **부당성**을 **적극 설명**하고, 우리 **주요 수출품목**에 대한 **예외**를 **요청**했다.

【 터키 철강 세이프가드 개요 및 경과 】

· **(조사대상)** 5개 철강재 품목(판재, 봉형강, 강관, 스테인리스, 철도용 레일 등)

* '17년 우리나라의 對터키 철강수출은 92.4만톤, 8.18억불(전체 철강수출 중 9위)

· **(조사배경)** 美 철강 232조 조치 및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에 따른 잉여물량의 터키 유입 증가를 우려하여 조사개시 결정

· **(주요경과)** 4.27 조사개시, 10.17 잠정조치 부과

잠정조치	대상	• 5개 철강재 품목 (스테인리스 열연제품 등)
	내용	• 최근 3년('15~'17년) 평균 수입물량의 100% 물량까지는 무관세 • 이후 물량에 대해서는 25% 관세를 부과하는 TRQ(Tariff rate Quota) 부과
	기간	• '18.10.17 ~ '19.5.5 (200일간)

· **(향후일정)** 조사개시 이후 9개월 이내에 최종 결정 (6개월 연장 가능)

□ 정부는 **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중단**을 **촉구**하면서, **세이프가드 최종조치**가 **불가피**한 경우 **한국산 주요품목 제외**와 **국별 쿼터**를 **요청했다**.

○ 먼저, 정부는 이번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는 △**급격한 수입 증가**, △**심각한 산업피해 발생** 또는 **우려**, △**수입 증가**와 **산업 피해간 인과관계** 등 **세계무역기구**(WTO) 협정상 **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**을 **적극 제기**했다.

* (수입급증) '13~'17년간 터키의 연평균 철강 수입물량은 단 0.9% 증가 / 판재 수입물량은 연평균 1.2% 증가, 봉형강, 스테인리스는 오히려 감소
* (산업피해) 조사대상기간('13~'17년) 동안 터키 철강산업의 국내 시장점유율, 고용, 설비가동률, 이익률 등 각종 경제지표 모두 개선추세

○ 또한, 긴급수입제한조치는 **터키내 철강가격 상승**으로 이어져, **소비자** 및 **자동차 산업 등 터키 연관산업에 피해만을 야기함**을 강조했다.

○ 한편, 긴급수입제한조치 **조치가 불가피**한 경우, **터키 국내생산만으로는 수요 충족이 어렵거나 터키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철강제품**을 조치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.

* 자동차용 도금·냉연·열연강판, 교량건설용 후판, 전기강판, 전기도금강판 등

○ 아울러, 국제 할당(**글로벌 쿼터**)**보다**, 국가별 할당(**국별 쿼터**) **방식이 한국산 철강재 수출에 유리하다는 점을 감안, 국별 할당 적용을 요청**했고, 터키로서도 국별 할당이 고품질 철강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.

□ **포스코, 현대제철, 현대 비엔지(BNG)스틸, 현대자동차** 등 우리 기업들도 **공청회에 참석**하여, **세이프가드 조치 부당성**과 **우리 철강제품**에 대한 세이프가드 **적용 예외**를 **요청했다.**

□ **정부**는 터키정부의 **철강 세이프가드 확정조치 전**까지 한-터키 자유무역협정(FTA) 이행위원회 등 **각종 채널**을 **모두 활용**하여, 우리 정부와 업계 입장이 **전달**되도록 **민관 합동** 대응을 계속하기로 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천서현 사무관(☎ 044-203-4874), 조무경 사무관(☎ 044-203-4872) 및 외교부 북미유럽경제외교과 김미리나 사무관(☎ 02-2100-769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